

# 梁山 法基里 窯址와 高麗茶碗\*

최연주\*\*  
yjchoi@deu.ac.kr

## <目次>

- |                         |                          |
|-------------------------|--------------------------|
| 1. 머리말                  | 3. 양산 법기리 요지의 사금파리와 고려다완 |
| 2. 양산 법기리 요지 관련 사료의 재검토 | 4. 맺음말                   |

主題語: 梁山 法基里 窯址(Yangsan Beobkiri Klin Site), 高麗茶碗(Goryeo Dawan), 倭館(Japanes office), 東萊(Dongrae), 韓日交流(Korea-Japan exchanges)

## 1. 머리말

梁山 法基里 窯址는 사적 제100호로서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리 산82번지 일대 2,161m<sup>2</sup>에 분포한 유적이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00호로 지정되었고, 2011년 7월 28일 ‘양산법기리도요지’에서 ‘양산 법기리 요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도자기 교류역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산 법기리 요지는 국가 등록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유적지의 규모와 형태,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요지의 존재는 물론 자기 생산 등과 관련된 사실을 밝혀 줄 만한 사료가 없다. 다시 말해 현존하는 각종 史書 등의 관련 기사 한계 때문이다. 둘째, 1963년 사적지로 지정될 때 참조한 보고서 및 자료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없고,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규모와 시대 편년은 물론 유구 형태 및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高麗茶碗은 일본에서 조선시대 사발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최근 양산 법기리 요지에서

\* 본 논문은 경남 양산시가 주최하고, NPO법기리도자에서 주관한 ‘2020년도 법기리요지 학술심포지움’(2020년 12월 18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하였다.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1) 문화재청 사적 제100호 양산 법기리 요지(<http://www.heritage.go.kr/heri/>).

2) 일본인이 말하는 고려다완이란 15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한반도 남부에서 생산되어 일본의 다도에 사용되는 명품 조선사발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한다(타니 아키라·신한균(2009)『사발』아우라 pp.15-40). 현재 高麗茶碗, 御本茶碗 등으로 불리는데 본고에서는 고려다완으로 통칭해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수습된 사금파리를 통해 瓷器의 樣態, 文樣 등이 일본에 현존하는 고려다완과 밀접하게 연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자기의 생산 시기와 제작 기법, 그 성격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sup>3)</sup> 양산 법기리 요지에 대한 정밀 발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조선시대 陶磁史에서 아주 중요한 유적지라는 사실이 도서<sup>4)</sup>와 언론<sup>5)</sup>을 통해 알려졌다. 경청할 만한 내용이지만 교양도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양산 법기리 요지를 왜관 내에 존치하였던 가마[窯]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등 일부 오류가 있다. 문헌 및 고고물질 자료 등이 제한적이다 보니 연구자들로부터도 관심을 끌지 못해 심화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sup>6)</sup>이다.

본고는 양산 법기리 요지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배경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법기리 요지와 고려다완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각종 지리지, 『조선왕조실록』, 『倭人求請善錄』,<sup>7)</sup> 『邊例集要』<sup>8)</sup> 등 史書 속에 나타난 관련 사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 사적지에 대한 현 상황과 인식 등은 각종 보고서와 고고 물질자료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수습된 사금

- 
- 3) 이와 관련하여 양산시와 사)NPO법기도자가 중심이 되어 매년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谷晃(2017)「高麗茶碗と法起里窯」 및 신한균(2017)「법기리 찻사발」 『법기리요지 복원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움』 양산시·NPO법기도자 ; 石崎 泰幸(2018)「御本茶碗と萩焼茶碗」 및 龜井 味樂(2018)「高取焼の歴史と高麗茶碗の魅力」 『자료집 2018년도 법기리요지 국제학술심포지움』 양산시·NPO 법기도자 ; 谷晃(2019)「高麗茶碗の産地と生産時期」 『자료집 2019년도 법기리요지 국제학술심포지움』 양산시·NPO법기도자
- 4) 신한균(2005)『우리 사발 이야기』가야넷 ; 타니 아키라·신한균(2009)『사발』아우라 ; 아사가와 노리타카 지음/최차호 옮김(2012)『부산요와 일본 다완』어드북스 ; 양산시립박물관(2016)『특별기획전 양산도자기의 궤적』양산시립박물관
- 5) 그 대강을 정리해 보면, 사적지 성격에 대해 법기리 가마터 운영 초기부터 일본에서 주문한 자기를 생산해 수출한 장소(『부산일보』2018년 7월 22일자 법기리 가마터는 도자 역사 풀어줄 열쇠)였음을 공론화하였다. 일부 사금파리와 일본에 현존하는 자기를 통해 명품의 자격 모두 갖춘 개성적 자연미를 갖춘 수준 높은 예술 작품으로(『부산일보』2019년 4월 27일자 [법기요·부산요 궤적을 쫓다]1부) 평가하면서, 법기리 요지에서 생산된 사발 등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어 한류의 시발점(『경남매일』2020년 7월 7일자 히틀러 미술상이 소장한 ‘조선 찻사발’과 ‘법기요’ 및 『부산일보』2020년 7월 7일자 스위스 미술관에 17세기 양산 법기서 만든 찻사발)으로 보았다.
- 6) 片山まひ(2010)「임진왜란 이후 일본 주문 茶碗에 대한 고찰」 『미술사연구』24 ; 신한균(2015)「井戸茶碗は何であって, 御本茶碗はいつ, どこで作られた物だろうか」 『研究紀要』24 野村美術館 ; 片山まひ(2015)「부산 고관요에 대한 고찰」 『동양미술사학』3 ; 장기덕·김명서(2016)「에도시대(江戸時代) 부산요(釜山窯)에 주문, 생산된 어본다완(御本茶碗)에 관한 연구」 『차문화·산업학』32
- 7) 『왜인구청등록』은 대마도주가 대마도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에도막부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물품을 조선에 요청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왜관무역을 실상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현재 인조 15년부터 경종 4년까지 8책이 현존한다. 김동철(2004)『국역 왜인구청등록』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 8) 『변례집요』는 예조 전객사에서 대일관계를 엮은 책이다. 선조 31년 겨울부터 헌종 7년 2월까지 일본인들이 내왕할 때 일어났던 사신내왕·사송선박·무역관계·표류인 송환·제반규정 및 조약·왜관관사·일본인의 요구·潛商·雜犯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책이다. 필사본으로 19권 19책으로 편찬 연대는 미상이 다. 하우봉 외(2000)『국역 변례집요』민족문화추진위원회

과리와 고려다완과의 연관성을 다각도로 논의해 보았다. 이를 통해 양산 법기리 요지의 성격과 그 위상, 그리고 朝·日 陶磁 교류와 그 추이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2. 양산 법기리 요지 관련 사료의 재검토

사적 제100호인 양산 법기리 요지에 대한 문헌 및 고고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전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배경은 사료 한계에서 비롯되므로 관련 사료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양산 법기리 요지의 자기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각종 地理志이다. 지리지에는 편찬 당시 지역 실상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각 지역 토산물과 공물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원천자료이다.

조선시대 동래현과 주변 지역의 자기 생산과 관련된 내용을 지리지를 통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세종 7년 편찬된 『경상도지리지』 東萊縣 貢賦조에는 紵布·목면, 쌀[米]·淸蜜 등은 있으나, 瓷器 관련 기록이 없다.<sup>9)</sup> 기장현도 관련 기록이 없다. 그러나 양산군에서 磁器,<sup>10)</sup> 언양현에서 沙器,<sup>11)</sup> 울산군에서 자기와 陶器,<sup>12)</sup> 김해도호부는 자기<sup>13)</sup>를 토산공물로 각각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단종 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동래현의 土宜는 벼·조·보리이며, 土貢은 가는 대[籬]·종이·표고버섯·미역, 김·청각·해삼·마른 홍합·대구어·청어·방어, 여우가죽·노루가죽·사슴가죽 등이다. 그 밖에 藥材로 방풍·천문동·맥문동·녹용·후박<sup>14)</sup> 등이 주요 토산공물로 기록되어 있다. 자기 관련 기록은 없다. 그러나 인근 지역인 양산군에는 磁器所가 남쪽 今音山里에 있으며 中品<sup>15)</sup>을 생산하였다. 울산군은 자기소와 陶器所가 북쪽 齊餘沓里에 있으며 下品<sup>16)</sup>을 생산하였다. 언양현은 자기소와 도기소가 남쪽 大吐里에 있으며 하품<sup>17)</sup>을, 김해도호부는 자기소가 동쪽 甘勿夜村에 있으며 하품<sup>18)</sup>을 생산하였다. 15세기 전반까지 동래현과 기장현에서 자기가 생산되지 않고 있음을 『경상도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를

9) 『경상도지리지』 경주도 동래현  
 10) 『경상도지리지』 경주도 양산군  
 11) 『경상도지리지』 경주도 언양현  
 12) 『경상도지리지』 경주도 울산군  
 13) 『경상도지리지』 진주도 김해도호부  
 14)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경주부 동래현  
 15)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경주부 양산군  
 16)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경주부 울산군  
 17)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경주부 언양현  
 18)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김해도호부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은 예종 1년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에는 동래현 도기소는 현의 북쪽 史川里에 있으며 그 품질은 品中이다. 자기소는 현의 북쪽 救也里에 있으며 품중<sup>19)</sup>의 도기와 자기가 생산하였다. 현의 북쪽에 위치한 사천리와 구아리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sup>20)</sup> 한편 울산군은 도기소와 鐵基所가 있는데 모두 군의 남쪽 長安里峴에 있으며 품중<sup>21)</sup>이다. 언양현은 도기소와 자기소가 있는데, 縣內的 瓮谷里와 남쪽 大吐里에 각각 위치해 있으며 모두 品下<sup>22)</sup>를 생산하였다. 김해도호부는 도기소와 자기소가 있으며, 도기소는 府의 동쪽 余次渚, 자기소는 府의 동쪽 甘勿에 있으며 모두 품하<sup>23)</sup>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양산군과 기장현은 관련 기록이 없다. 중종 25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동래현에서 대구·청어·홍어·전어, 전복·굴·홍합·김·미역·해삼·다시마, 석류·유자, 磁器·陶器, 竹箭 등 토산물<sup>24)</sup>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양산군,<sup>25)</sup> 울산군,<sup>26)</sup> 언양현,<sup>27)</sup> 기장현,<sup>28)</sup> 김해도호부<sup>29)</sup>에는 자기 관련 기록이 없다.

지리지 내용을 종합 분석해 보면 첫째, 15세기 전기에 편찬된 지리지에 동래현·기장현은 자기 기록이 없었으나, 양산군·울산군·김해도호부는 기록이 있다. 둘째, 15세기 중기 이후 편찬된 지리지에 동래현에서 자기 및 도기 기록이 있다.<sup>30)</sup> 즉 15세기 전반에 양산·김해에서 자기 등을 생산하였고, 15세기 중기에 이르면 동래에서도 자기를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산 법기리 요지가 입지한 창기마을은 조선 태종대에 양산군에 편입되었으나, 임진왜란 후 금정산성이 축성되면서 동래현에 병합되었다. 북면소정 등과 합쳐 창기동이라 불렀다<sup>31)</sup>

19) 『경상도속찬지리지』경주도 동래현

20) 부산시 조선시대 유적지 분포 조사에서 남산동 자기요지, 온천동 요지가 조사된 바 있다. 이 유적지가 사천리와 구아리와 연관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2006) 『문화유적분포지도-부산광역시』, pp.124-153

21) 『경상도속찬지리지』경주도 울산군

22) 『경상도속찬지리지』경주도 언양현

23) 『경상도속찬지리지』진주도 김해도호부

24) 『신증동국여지승람』권23, 경상도 동래현

25) 『신증동국여지승람』권22, 경상도 양산군

26) 『신증동국여지승람』권22, 경상도 울산군

27) 『신증동국여지승람』권23, 경상도 언양현

28) 『신증동국여지승람』권23, 경상도 기장현

29) 『신증동국여지승람』권32, 경상도 김해도호부

30) 조선 전기에 작성된 지리지 내용은 각 지역의 실상을 반영한 것이지만, 앞서 검토한 여러 지리지에서 자기 및 도기가 생산이 15세기와 16세기 내용이 다르다. 지리지에 기재된 내용과 함께 공물 수취제도의 변화, 상수공업의 변화, 각 지역의 토산물 생산 추이 등과 여러 요인을 함께 검토해야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 수공업의 변화와 연관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 임진왜란 시기 일본군에 의해 전국도가 유통되면서 가마터가 파괴되고 피로인 중에서 도공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보면, 17세기 동래 및 인근 지역의 자기 및 도기 생산 관련 시설은 이전 시기와 달랐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논고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

고 한다. 정조 10년 동래현, 고종 34년 동래군에 각각 병합되었다가 1906년 동래군에서 분할되어 양산군에 소속되었다. 16세기 동래현의 북쪽에서 자기 및 도기가 생산된 사실, 후술할 예정인 인조 17년 일본이 差倭를 보내 동래의 왜관 밖에서 자기를 구웠다<sup>32)</sup>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동래현에 소속된 가미는 양산 법기리 요지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다음은 조·일관계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인 『왜인구청등록』, 『변례집요』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양산 법기리 요지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강화교섭과 절영도 임시왜관, 두모포 왜관의 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倭館窯가 두모포 왜관에 설치되므로, 왜관의 廢置之를 살펴보면 자기 생산과 왜관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것이다.

왜관은 조선 태종 때에 처음 설치되었다. 왜인들의 방문이 증가하자 왜구 노략질을 방지하고 회유하고자 교린정책의 일환으로 왜관을 두었다. 오늘날 부산과 진해에 왜관을 설치한 후 세종 원년 대마도 정벌로 폐쇄하였다가 곧 부산포, 내이포, 염포 등 삼포를 열었다. 중종 5년 삼포왜변이 일어나자 일시 폐쇄한 후 중종 39년부터 부산포 왜관만 존속시켰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그 책임을 물어 폐쇄시켰다. 선조 31년에 강화교섭이 시작되자, 3년 뒤에 임시왜관을 절영도에 설치하였다. 정식으로 왜관 설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선조 39년에 이르러서이다.

가) 평시에 쓰던 倭館이 이제는 부산성 안으로 들어갔고 左水使와 釜山僉使가 모두 그 안에 주차하므로 왜인을 이곳에 섞여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혹 부산 舊鎮 근처나 다른 온당한 곳에 빨리 몇 칸을 꾸며 서둘러 수리하고 담과 문은 높고 튼튼하게 만들어 몰래 통하여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sup>33)</sup>

당시 임시왜관이었던 절영도 왜관 문제가 대두하자, 왜관 재설치와 관련하여 비변사(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조에게 불가함을 알렸다. 임진왜란 이전 부산포 왜관은 이미 부산진성 안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곳으로 이전이 불가함을 전하였다. 다른 지역을 물색하도록 청하자 선조가 허락하였다. 당시 경상도관찰사 鄭陽湖 글에서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31) 양산시·통도사성보박물관(2004)『문화유적 분포지도-양산시』 참조

32) 『왜인구청등록』 기묘(인조 17년) 8월 16일

33) 『선조실록』 권203, 선조 39년 9월 17일 계미

나) 예전부터 왜관과 부산은 한 城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평시에는 부산은 서쪽에 있고 왜관은 동쪽 5리쯤 되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 釜山嶺에 倭人이 쌓은 성을 왜관의 옛터 옆으로 옮겨 쌓았으니 바로 동쪽입니다. 이번에 짓는 왜관도 서쪽 5리쯤 되는 곳에 있어서 부산과의 거리가 평시와 일반이니 옛터이나, 새터이나는 논할 바가 아닌데 ...<sup>34)</sup>

왜관을 부산진성 서쪽 5리에 새로 지었는데, 이것이 두모포 왜관이다. 착공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선조 40년 6월 전후 완공되었다. 규모는 동서 126보, 남북 63보이며 동쪽은 바다와 접하고 나머지 방향은 담이 둘러쳐 있다. 동문 밖에 좌천이 흐르고, 왜관 중앙에 연향정이 좌우에 동관과 서관이, 남쪽에 선창이 있었다. 왜관은 그 후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되었고, 그 때마다 조선 조정에서 쌀과 베를 풀어 구제하는 한편 건물도 다시 지어 주었다. 선조 40년에 설치된 두모포 왜관은 숙종 4년 초량으로 옮겨 갈 때까지 72년 동안 유지되었다.<sup>35)</sup> 이러한 추이를 고려하면서 두모포 왜관과 자기 제작 관련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임진왜란 이후 강화교섭이 진행된 이후 조·일관계가 정상화 과정을 밟아 가고 있을 때<sup>36)</sup> 일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기 제작과 교역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절영도 임시왜관과 두모포 왜관이 존속한 시기 동안에 자기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 중에서 광해군 3년 기사가 주목된다.

다) 동래부사 趙存性<sup>37)</sup> 때 왜인이 서계를 가지고 와서 陶鑄, 茶器, 甫兒, 瓦器 등의 물건을 청하였습니 다. 이에 金海 장인으로 하여금 도자기를 구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 다라는 연유를 치계하였다. 회하는 없었다.<sup>38)</sup>

34) 『선조실록』 권212, 선조 40년 6월 20일 신해

35) 부산시사편찬위원회(1989)『부산시사1』부산직할시 ; 최연주(2017)『부산의 역사와 문화』신아사 참조

36)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조선과 일본은 국교가 단절되었다. 德川家康이 江戶幕府를 세워 정권을 장악하고 조선 측에 통교 허용을 간청하였다. 조선 사정에 밝은 대마도주에게 외교권을 주어 1599년부터 160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내 외교 교섭을 요청해 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그들의 진의를 파악하고, 그 선행조건으로 국서를 정식으로 먼저 보내올 것, 왜란 중 왕릉을 발굴한 犯陵賊을 압송해 올 것, 被擄을 송환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일본이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광해군 1년에 己酉約條이 체결되었다.

37) 조존성은 광해군 2년 7월에 동래 부사로 임명되었다. 『광해군일기』 권11, 광해군 2년 7월 12일 을묘

38) 『변례집요』 11, 구무(求買) 상, 신해년(광해군 3) 3월. 이 기사와 관련하여 기존 논문 등에서 ‘『변례집요』 12, 구무, 신해년(광해군 3) 3월’이라 하였다. 필자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변례집요』(청구번호(B2古朝 51-나101))를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2020년 11월 10일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변례집요』 11, 구무 상이므로 수정하였다.

일본이 동래부에 주문 의뢰하여 陶鑄(茶器甫兒, 瓦器<sup>39)</sup>)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김해 장인을 불러 자기를 만들었다. 광해군 3년 당시 왜관요는 두모포 왜관 밖에 있었다. 그렇다면 동래부 관내 다른 가마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왜 김해 장인일까. 이와 관련해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인용해 보면, ‘김해는 임진왜란때 첫 시기부터 마지막까지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이다. 찻사발은 일본다도를 위한 그릇이다. 당시 다도를 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사무라이이자 영주인 다이묘들이었다. 다도를 하는 다이묘들은 자기가 디자인한 것을 사기장을 불러 직접 지도하여 찻사발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찻사발은 일본에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오리베야끼 등이 있다. ... 김해는 당시 일본의 여러 장수가 거쳐간 장소이다. 그래서인지 긴카이 金海라고 불리는 사발들이 일본에 많다. 이런 김해사발은 대부분 임란 중에 다이묘들이 자기가 디자인한 것을 김해의 일본군의 진중에서 조선사기장을 시켜 만든 것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인의 취향에 길들여진 조선 사기장들이 김해에 더러 있었다. 여기서 김해 장인을 시켜 만들었다는 이유는 일본취향을 아는 김해 사기장을 동래부에서 양산 법기리로 불러 만들었다고 추정된다<sup>40)</sup>고 하였다. 다소 추론에 의지한 부분도 있으나, 조선 자기의 매력에 흠뻑 빠진 당시 일본 수요층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김해 장인이 양산 법기리 가마를 이용해 맞춤형 자기를 제작하였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와 관련해 김해 일대에서는 일본 주문다완의 사금파리 등이 발견된 바가 없다는 사실<sup>41)</sup>을 확인하였다. 현존하는 고려다완의 사금파리는 오직 양산 법기리 요지에서만 수습되었다. 임진왜란 직후 일본에 의해 주문 제작된 고려다완은 양산 법기리 가마에서 조선 장인들에 의해 흙과 땀감으로 만든 자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당시 조선과 일본에 의한 자기 제작과 그 교역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자기의 수요와 제작, 교역 등은 다음 사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라-1) 도주가 말하기를 ‘釜館의 ... 찻잔을 만드는 일에는 귀국의 사정에 폐단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자세히 알지만, 대군 이하 대소의 장관들이 모두 그것을 구청하니 달리 대어 쓸 곳도 없어서

39) 陶鑄는 미리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흙을 채워 도자기를 빚는 도구, 茶器甫兒는 사발보다 조금 작은 보시기를 일컫는 것으로 찻사발, 瓦器는 기와그릇으로 투박한 사발로 본다(타니 아키라·신한균(2009)『사발』아우라, p.147).

40) 신한균(2017)「법기리 찻사발」『법기리 요지 복원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양산시·NPO법기도자 p.29

41) 타니 아키라·신한균(2009)『사발』아우라 pp.146-150. 그 근거로 ‘일본의 『萬寶全書』라는 책은 1596~1624년 경에 김해 窯에서 구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해다완은 임진왜란 당시 김해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이 조선 서기장을 시켜 만든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일본인들은 김해다완을 만든 장소를 김해라고 추정하나 김해에서는 일본 주문다완의 사금파리가 발견된 적이 없는 반면, 동래부의 가마터로 추정되는 양산 법기리에서는 주문 김해다완 사금파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동래부 소속의 가마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득이하게 사람을 보내어 제조하는데, ...42)

라-2) 또 말하기를 ‘찾잔을 구워 만드는 일은 곧 에도의 大君 이하 諸將들이 간절히 구청하는 물건이고, 도주가 심력을 다하는데, 전일에 단자를 올려 구청하고 이제 와서 보니 만든 것이 많지 않고 재료도 쉽지 않아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작은 염려가 아닌데, 금년에는 겨울철에 이미 들었으니 말해도 무익하거니와, 명년에는 심분 유념하여 달라’ 하거늘, 답하기를 ‘금년도 구을 흠과 빨감과 장인을 말하는 대로 정하여 주었는데, 만든 수량의 다과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매년 구워 만드는 것은 따라 주기 어려울 듯 하지만, 그러나 말하는 바가 이러하니 마땅히 稟報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43)

라-1)에서 江戸幕府의 대군과 여러 장수들이 조선 자기를 구하고 있다고 대마도주는 말한다. 라-2)는 동래부사 장계로서 강호막부의 대군을 비롯하여 여러 장수들이 구하는 물건이 조선 자기라 한다. 일본 내에 조선 자기의 주문과 수요와 관련된 업무 추진에 있어 대마도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일본은 茶道가 크게 성행하였고, 차노유(茶の湯)문화의 영향으로 조선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지배층들은 앞을 다투어 조선 자기를 구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44) 그래서 대마도주를 통해 왜관이 설치된 동래부에 집요하게 제작 또는 구입을 요구하는 배경이 되었다. 한편 일본에서 요구하는 자기는 沙器이다.

마) 동래부사 민응협의 장계 :

沙器에 대하여는 나와서 굽는 것이 이미 근래의 사례가 되었기에 監役倭가 오고 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손익이 없으니 전례대로 구워 만들도록 허락하며, 서계는 받아서 해조로 올려 ...45)

당시 일본에서 자기 제작과 관련하여 동래부에 요구한 것은 사기로 한정한다. 인조 22년 동래부사 沈之溟 장계에는 陶工은 곧 沙器匠이라46) 하였다. 일본 측에서 요구한 자기는 곧 자기임을 알 수 있다. 라)와 마)를 종합해 보면 일본 막부의 대군과 여러 장수들의 조선 자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이를 파악한 후 대마도주에게 전달하였고, 대마도주는 동래부사에게 제반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연관해 『왜인구청등록』을 통해 자기 생산 기사를 검토해 보면,

42) 『왜인구청등록』 경진(인조 18년) 5월 19일

43) 『왜인구청등록』 경진(인조 18년) 10월 18일

44)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여러 논문 등을 통해 검토된 바이므로 논지 전개의 편의를 위해 생략하겠다. 정동주(2011)『조선 막사발 천년의 비밀』한길아트 ; 아사가와 노리타카 지음/최차호 옮김(2012)『부산오와 일본 다완』어드북스

45) 『왜인구청등록』 정해(인조 25년) 9월 16일

46) 『왜인구청등록』 갑신(인조 22년) 5월 23일

알 수 있다.<sup>47)</sup>

바-1) 역관 등의 수본 膳書 :

각양의 찻잔[茶碗]. 각기 그 서식[見樣]을 저들 스스로 가져와서 匠人과 白土, 땀감 등을 구하여 관 안에서 조작하겠다고 말하거늘, 순찰사께서 분부하여 하동과 진주의 장인들이 燔造하기 위해 왜관 밖의窯에서 조작하기로 하였음.

一. 잡물구청 및 함께 무역하고자 하는 것.

◦ 陶器 각양의 찻잔[茶碗].<sup>48)</sup>

바-2) 역관 洪喜男과 金謹行的 수본 :

도주가 말하기를 ‘釜館의 ... 찻잔을 만드는 일에는 귀국의 사정에 폐단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자세히 알지만, 대군 이하 대소의 장관들이 모두 그것을 구청하니 달리 대어 쓸 곳도 없어서 부득이 하게 사람을 보내어 제조하는데, 지난 해 工匠 및 각종 沙土와 燒木 등의 물자를 자주 들어 주어서 감사해 마지 않았는데, 이번에 내려올 때 대군이 각양의 사기 서식[見樣]을 요구하니 역시 부득이하게 差人을 一特送船 편에 보내었으니, 이 뜻을 돌아가 동래에 고하여 사토 등의 물자를 넉넉히 覓給하고, 솜씨 좋은 장인을 전례대로 들여보내 주시면 천만다행이겠다’고 하였습니 다. 답하기를 ‘... 또한 사기를 제조하는 한 가지 일은 지난해 民力의 다소를 피하지 않고 차왜가 말하는 대로 장인 및 사토 등의 물자를 넉넉히 들여보냈다. 그러나 공무를 빙자하여 사사로운 영리를 도모하는 폐단이 그 사이에 또한 없지 아니하였다. 이후로는 혹 사람을 보내더라도 私造를 크게 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sup>49)</sup>

바-3) 경상감사 임담이 초7일 성첩한 장계 :

찻잔을 빚어 만들기 위한 白土 80석, 藥土 10석, 黃土 50석, 匠人 5-6명, 燒木, 假家は 실로 호대하고, 본도에서 자기를 만드는 土物은 단지 우도의 호남 경계에 있는 한 두 읍에만 있는데, 이처럼 가뭄이 극심하여 농민이 살아가기에도 어려운 시절에 갑자기 흙을 운반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실로 염려되기에, 한편으로 왜인 등에게 7월 사이로 물려서 거행하지는 뜻으로 역관들을 시켜 타이르게 하였는데 아직 수궁할지 여부는 알지 못하겠으며, ... 陶土와 良馬 등의 일을 해조에 명하여 좋을 대로 선처하게 하시기를 ...<sup>50)</sup>

47) 『왜인구청등록』은 인조 15년부터 기록되어 있으며, 두모포 왜관에서 초량 왜관으로 이전은 숙종 4년에 마무리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조 15년~숙종 3년 사이 기록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48) 『왜인구청등록』 기묘(인조 17년) 8월 16일

49) 『왜인구청등록』 경진(인조 18년) 5월 19일

50) 『왜인구청등록』 갑신(인조 22년) 6월 12일

바)는 두모포 왜관이 설치된 직후부터 숙종 4년 초량 왜관으로 이전하기까지의 자기 생산 관련 기사이다. 1)에서 두모포 왜관 밖의 가마를 활용해 자기들이 가져온 서식[見樣]에 의해 자기를 제작하였다. 2)에서 일본 측에서 자기 제작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 뜻을 전하면서 물자를 넉넉히 제공해 줄 것과 솜씨 좋은 장인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sup>51)</sup> 3)에서 자기 생산의 원료인 백토 등의 원활하게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바-1)에서는 두모포 왜관 밖에서 자기를 제작하였으므로 조선 가마를 활용하였다고 하지만, 바-2)와 3)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어떤 가마인지 분명하지 않으나,<sup>52)</sup> 다음 사료를 통해 그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

사-1) 동래부사 丁好愬 때이다. 차왜 平成助가 沙器그릇을 만드는 일로 나왔으나, 접대하지 않았다고 장계하였다.<sup>53)</sup>

사-2) 燔造差倭 藤原成親, 감역왜 2인, 종왜 9명, 두왜 3인, 좌위문의 종왜 4명이 서계를 지참하고 나왔다고 장계하였다.<sup>54)</sup>

사-3) 茶碗次知燔造倭 4명이 동래 부사 및 부산 첨사에게 보내는 서계를 지참하고 나왔으므로, 서계를 받은 후 단지 다완을 만드는 일만 허락하고 접대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장계하였다.<sup>55)</sup>

일본은 燔造差倭라는 사신을 보내어 자기 제작에 관한 업무를 맡도록 하였고, 陶工도 보내었다.<sup>56)</sup> 당시 동래부에서 자기를 제작하게 된 것은 일본 현지의 요구 및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

51) 조선 정부가 허락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이 참조된다. “그 중 사기를 구워 만드는 일은 차왜가 방금 도착하였으니 불가불 진작 부응하여 먼 곳 사람의 바람에 부응하여야 하겠다. 장인은 이전부터 저쪽 왜인들이 넉넉하게 料布를 주었으니, 대단한 폐단이 있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들어가는 白土 운반은 극히 어려운데, 6~7월 농사가 조금 쉬게 되는 것을 기다려 비로소 일을 시작할 뜻으로 역관 등에게 명하여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장인과 백토는 가까운 각관에서 전례대로 보내줄 것을 해조에 명하여 ...”라고 하면서 이를 허락하였다(『왜인구청등록』 경진(1640) 5월 19일). 당시 조선과 일본의 교섭내용에 대해서는 아사가와 노리타카 지음/최차호 옮김(2012) 『부산요와 일본 다완』 어드북스 pp.105-112 참조

52) 일본의 관련 논고에서는 당시 왜관에서 사용한 가마를 釜山窯라고 통칭해서 부른다. 그래서 두모포 왜관의 가마를 ‘구(古)관기 왜관요’, 초량왜관의 가마를 ‘신관기 왜관요’로 구분한다(谷晃(2017) 『高麗茶碗と法起里窯』 『법기리 요지 복원을 위한 국제학술회담포지음』 양산시·NPO법기도자).

53) 『변례집요』1, 별차왜, 신사년(인조 19년) 1월

54) 『변례집요』1, 별차왜, 정해년(인조 25년) 9월

55) 『변례집요』1, 별차왜, 경인년(효종 1년) 6월

56) 인조 17년 대마도주 宗義成이 막부 德川家光의 명령을 받아 다완 견본을 동래부에 보내 제작하기를 요청하였고, 그 이듬해 사신을 파견하여 인조 19년에 완성하였다. 번초차왜는 인조 22년 다완 제작을 위해 온 橋倉忠助로부터 시작하여 숙종 43년 가마가 폐쇄될 때까지 지속되었다(泉澄一(1980) 『江戸時代

다. 그래서 대마도주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관리를 수시로 파견해 주문 제작하거나 제작에 직접 관여하였다.

바-1)을 근거로 하면 당시 자기를 굽던 가마가 왜관 내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특히 바-2)의 역관 홍희남과 김근행 보고에서 私造 금지를 언급하였다. 이는 자기 제작이 동래부의 허가 사항임을 알려준다. 일본에서 가져온 서식을 바탕으로 조선 도공과 흙, 땀감 등을 이용한 사실을 통해 일본이 주문한 자기를 제작하였다. 즉 자기 제작을 위해 동래 이외의 지역에서도 흙과 땀감 등을 조달하였고, 조선과 일본 도공이 함께 참여해 제작하였다. 일련의 과정은 예조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가마가 두모포 왜관에 설치 운영되기 전까지는 동래부에서 자기 재료 조달, 주문 생산, 제작 등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분명하다. 바)와 사)를 통해 두모포 왜관 밖에서 자기가 수시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자기의 생산은 동래부 내 가마를 활용하였을 것이고, 양산 법기리 가마가 유력하다.

한편 바-1)의 ‘잡물구청 및 함께 무역하고자 하는 것, 陶器 各양의 査探茶碗’이라는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일본은 조선 자기의 확보를 위해 주문제작은 물론 교역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였다. 자기 구매는 상인 등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음 사료를 참조해 보자.

아) 부산 倭館에 시장을 여는 일을 일찍이 계하받아 본도에 行會한 결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여는 날이 드물기 때문에 왜인들이 오래도록 체류하고 있고, 그 사이 밀무역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 간사한 무리들이 자기들 멋대로 시장에 나와 밀무역을 한 울로 논하게 함으로써 간사한 무리들이 자기들 멋대로 시장에 나와 밀무역을 자행하는 폐단을 근절시키도록 하소서.<sup>57)</sup>

광해군 2년 비변사에서 올린 상소문 일부로서 일본인과의 상거래에 있어 밀무역 폐단을 있게 되자 그 규제를 풀고, 밀무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할 것을 상소한 것이다. 당시 밀무역에 대한 폐단을 언급하면서 館市 사이에 혼잡하게 되는 폐단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상거래가 마무리된 일본인에 대해서는 곧바로 떠날 것을<sup>58)</sup> 명하였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상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기를 비롯한 여러 물건에 대한 거래는 활발하였을 것이다. 일본의 공식 요구에 따라 제작된 자기는 동래부 내의 가마에서 주문 제작되었고, 그 외의 자기는 공무역 및 밀무역 등을 통해 확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다완 확보 경로가 다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 日朝交流(上)』『關西大學 東西學術研究所紀要』12, p.1).

57) 『광해군일기』 권12, 광해군 2년 9월 9일 신해

58) 『광해군일기』 권10, 광해군 2년 3월 12일 무자

지금까지의 문헌자료 재검토를 통해 대략 3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조선 전기의 지리지 분석을 통해 동래를 비롯해 양산, 김해 등지에서 도기와 자기가 생산되어 왜관 인근 지역에서 다양한 가마가 존재하였다. 둘째, 절영도 임시왜관 시기부터 두모포 왜관에 가마가 설치되기 직전까지는 왜관 밖에 존치한 가마에서 자기가 주문 제작되었다. 셋째, 일본은 공식적인 주문 제작 뿐 아니라公私 교역을 통해서도 자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동래 또는 양산, 김해는 자기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일본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강화교섭 직후인 1598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자기 수요에 맞추어 자기 수급, 즉 주문 제작은 물론 판매 등이 원활하게 이루지고 있다. 자기 생산 시설인 가마는 동래부 관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산 법기리 가마가 유력한 생산 거점으로 추정된다.

### 3. 양산 법기리 요지의 사금파리와 고려다완

조선과 일본의 강화교섭이 마무리된 직후 대마도주는 동래부에 사자와 견분을 보내 막부와 여러 장수들의 간절한 요청이라 하여 다완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동래부는 예조 허가를 받아 하동, 진주의 흙과 도공을 소집하여 왜관 밖에 가마를 조성하여 자기를 구워 보냈다. 그 후 초량왜관 내에 釜山窯가 설치되자 200~300리 떨어진 하동·진주, 경주·울산 등에서 흙과 땀감 등을 조달해 자기를 굽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조선과 일본의 강화교섭이 진행된 직후부터 왜관에 가마가 설치되기 직전까지는 동래부 관내의 가마에서 자기를 제작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헌자료는 찾을 수 없으므로, 고고 물질자료를 통해 실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양산 법기리 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사적 제100호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오래 전부터 근처에 있는 창기마을의 이름을 붙인 ‘창기사발’을 만들던 가마터로 알려진 곳이며, 조선 중기인 16~17세기경 지방에서 사용하던 백자를 만들던 곳이기도 하다. 마을 뒷산의 기슭에서 산 윗부분까지 가마터가 여러 곳이 남아있는데, 사적으로 지정된 이 곳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집과 무덤들이 들어서면서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발견되는 그릇 조각들을 보면 마을 근처에 있는 가마터는 대체적으로 17세기의 것이고, 산 쪽에 있는 가마터는 대부분 16세기경의 것이다. 아마도 산 윗쪽에 가마를 먼저 만들기 시작하고, 이후에 점차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도자기의 형태는 대부분이 사발·대접·접시로, 만들어진 모양새가 거칠고 투박하여 좋은

질의 백자들은 아니었던 듯하다. 발견되는 백자들 가운데 굽의 형태나 백자의 질이 일반적인 다른 백자들과는 다른 종류가 보이는데, 이것은 일본의 주문을 받아 수출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찾잔으로 추정된다. 법기리 가마터는 한국과 일본의 도자기 교류 역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곳이다.

양산 법기리 가마는 16세기부터 사용되었고, 여기서 만들어진 자기는 모양새가 거칠고 투박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자)에서 일본의 주문을 받아 수출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찾잔으로 추정된다고 한 내용이 주목된다. 앞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마도주의 요청에 의해 왜관 밖에서 주문 제작된 다완 또는 번조차왜가 와서 제작하였던 다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적 제100호 주변에서 수습된 사금파리 중에서 일본 국보로 지정된 고려다완의 양태, 문양 등이 매우 흡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현존하는 문헌자료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수습된 사금파리를 통해 일본에서 사용된 찾잔 즉 고려다완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기리 요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963년 사적지로 지정될 때 양산 법기리 요지 관련 보고서 및 세부 문건은 찾을 수 없으며, 2021년 현재 관련된 정식 발굴이 보고된 바도 없다. 다만 2013년과 2019년 정밀지표조사가 두 차례 시행되었다. 각각의 정밀지표조사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시행한 정밀지표조사에 따르면 양산 법기리 요지 주변에 여러 유적지의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선시대 백자편 등이 채집된 곳은 기장군 월평리 유물산포지 H, 기장군 월평리 유물산포지 G, 기장군 두명리 유물산포지 A, 기장군 임곡리 유물산포지 D, 양산 법기리 창기 유물산포지 등이다. 이들 지역은 양산 법기리 요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요지를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정밀지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개 구역에서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유적에서 수습된 유물은 성격이 같고 지리적으로 접해 있었다. 새로 추가된 구역도 있어 앞으로 사적 100호의 유적 범위 확대 및 재조정 등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sup>59)</sup>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도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에서도 정밀지표조사를 시행하였다. 양산 법기리 요지를 8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1구역에서는 기마뿐 아니라 요업 관련 시설이 입지할 가능성 등을 제기하였다. 채집한 유물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백자의 기종은 발, 접시가 대부분이며, 회색·적색의 태토에 모래와 기초가 다량 포함된 瓷器片이 채집되었다. 그 운영 시기를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중반으로 보았다.

59) 우리문화재연구원(2013)『양산시 법기리도요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현황측량 결과보고서』양산시·우리문화재연구원

이를 바탕으로 유적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sup>60)</sup>고 한다.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정밀지표조사에서 사적 제100호의 지정 범위 확대와 체계적인 발굴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1963년 사적 지정 당시에 정밀지표조사 또는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 규모로 확정하여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적지의 주요 구역은 훼손되고 방치된 채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2015년 전국 요지의 보존 정비 관리방안을 위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주목된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먼저 경작지로 활용되는 등으로 인해 유구의 훼손이 우려되고, 해당 지역이 사적임을 알리는 사인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 窯址는 일반 관광객은 없었으나 일본인과 인근 도예가들의 무분별한 파편 반출로 인해 훼손되었고 앞으로 훼손 방지를 위해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필요시 요지 인근 지역 토지매입 또는 代土 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범위를 명확히 밝혀 지정 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sup>61)</sup>고 하였다.<sup>62)</sup> 결국 사적 제100호 양산 법기리 요지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이나 관리 등에 대해 주무관청은 물론 지자체 등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적지의 성격 또는 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식 발굴 및 체계적인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 고려다완이 사랑받는 이유가 크기, 형태 등에서 일본인들의 차문화를 충족하기 때문<sup>63)</sup>이라 한다. 양산 법기리 요지에서 수습 및 출토된 사금파리와 일본 다완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있었다. 1918년 교토의 도예가였던 眞清水 藏六이 『도기』라는 책을 통해 처음 제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양산 창기마을에서 동남쪽으로 1리 거리에 三鳥土, 刷毛日土, 御本刷毛土에 당한 흙이 있었고, 그 곳에서 靑井戶, 御本, 餌合자와 유사한 도자기의 사금파리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野守建이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기리 요지에서 일본의 주문 다완의 사금파리가 확인되었다.<sup>64)</sup> 다소 단편적인 내용 및 주장이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연구자들은 眞清水 藏六, 野守建의 주장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면 ‘御所丸, 金海, 彫三島와 함께 일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매우 많이 구워진 茶碗이 伊羅保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라보 다완이 언제부터 구워지게 되었는지, 모두 주문된

60)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2019)『사적 제100호 법기리 요지 정밀지표조사 학술연구용역』양산시·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61) 문화재청(2015)『요지의 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문화재청, pp.372-378

62) 문화재청(2020)『2020 사적 정기조사』문화재청, pp.1065-1073

63) 타니 아키라·신한균(2009)『사발』아우라, pp.16-18

64) 신한균(2019)「국가 사적 100호 양산 법기리 요지의 연구 성과에 대하여」『자료집 2019년도 법기리요지 국제학술심포지엄』양산시·NPO법기도자 재인용

다완이었던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일찍이 한반도의 오래된窯址를 조사하였던 野守健氏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라보 다완이 경상남도 동래 근교 ‘昌基’라는 곳에서 구워졌던 것은 분명하다. 필자도 일찍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창기마을에 방문하였고, 논밭에서 ‘정조이라보’의 굽(고대) 조각을 몇 개 주웠다. 더욱이 野守健은 ‘창기’에서 ‘内刷毛’나 ‘片身替わり’ 이라보 파편도 발굴되었기 때문에 각종 이라보가 여기서 구워졌다는 것은 의문이 없다. 창기요가 동래 근교에 있었다는 것은 이라보의 주문이 조선왕조의 외교를 담당하던 동래부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sup>65)</sup>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고려다완과 양산 법기리 요지에서 제작된 자기의 연관성을 오래 전부터 확인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타니 아키라는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고려다완 중 御本 계통은 일본인의 기호가 강하게 반영된 주문 찻사발로서 조선 땅에서 조선의 흙과 유약으로, 또 조선인 사기장에 의해 만들어졌는데도 한국에서는 전통 사발로 인정하지 않는 편이라, 일본에서는 고려다완 수용과 관련하여 사적 제100호의 발굴 성과를 기대하고<sup>66)</sup> 있다. 양산 법기리 요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내보다 일본에서 더 주목하는 사적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산 법기리 요지에서 수습된 사금파리 일부를 대상으로 고려다완과 비교해 보기로 하자.<sup>67)</sup>



<그림1> 좌) 황이라보, 우) 양산 법기리 사금파리

65) 林屋晴三(1981)「概説」『高麗茶碗』中央公論社, p.222

66) 타니 아키라·신한균(2009)『사발』아우라, pp.41-42, p.179

67) 사적 제100호에서 수습된 사금파리와 고려다완 비교는 사단법인 NPO법기도자 신한균 이사장이 구술하고 필자가 정리하였다. 2020년 11월 17일과 30일에 경남 양산시 ‘신정회요’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사진과 구술 내용의 대부분은 각종 학술대회 발표 원고 및 언론 기고문과 중복된다. 그러나 비교 검토를 통해 양산 법기리 요지에서 제작된 자기의 성격과 특성은 물론 앞으로 연구 토대를 구축 및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게재한다.

<그림1>은 양산약토사발[黃伊羅保]로서 전체적으로 유약이 노랗게 발색한 약토 유약으로 빚은 사발이다. 전 부분을 약간 짓혔으며 깎은 굽에서 조선 사기장이 몰두한 禪的 경지에 이른 신성함을 느낄 수 있다. 태토는 철분이 많으며 간혹 흰색을 띤 것도 있다. 내부에 모래자국이 있는 것은 주문양산사발, 伊羅保茶碗의 공통된 특성이다. 전체적으로 조선 사기장의 깊은 숨씨가 느껴지는 찻사발이다.



<그림> 좌) 굽에 굽게 아리랑 문양이 있는 양산거친아리랑 굽, 우) 양산 범기리 사금파리 굽

<그림2>는 양산거친아리랑굽사발[釘厠伊羅保]로서 범기리에 가장 많이 만들어진 찻사발이다. 철분이 많은 점토에 모래가 혼합된 독특한 태도를 사용하였다. 굽 부분에서 허리에 걸친 칼자국 자리가 폭이 넓다. 구연부(차를 마실 때 입에 닿는 부분) 처리를 자세히 보면 획일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유 정신을 추구하는 조선 사기장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굽 가장자리를 깎아 돌린 것은 차도구로서 중요한 볼거리이며, 표면에서 느껴지는 까칠까칠함은 큰 특색이다.



<그림3> 좌) 御本玄悅茶碗, 우) 양산 범기리 사금파리 굽

<그림3>은 玄悅이라는 도공두의 이름을 붙인 부산 주문사발이다. 두 사발의 색깔은 달라 보이지만, 그것은 불에 따라 색깔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그릇 형태와 흙은 한 종류이다. 좌측 자기 御本玄悅茶碗의 눈박이는 떼어내어 사용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육안으로 보아도 같은 종류이다.



<그림4> 좌) 회어본(繪御本 - 예고혼)이라는 부산주문사발, 우) 양산 범기리 사금파리

<그림4>의 두 사발의 그림 및 그 처리 기법은 서로 유사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 4종의 고려다완과 사금파리의 비교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양산 범기리 요지에서 수습된 사금파리 중에서 일부는 고려다완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점, 흙 성분이 동일하다는 점, 문양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일본 내 존재하는 고려다완은 일본에 의해 디자인되어 주문 생산된 자기이지만, 조선의 흙으로 자기 장인에 의해 빚어 만든 자기이다. 이를 생산하는데 이용된 가마는 바로 사적 제100호 양산 범기리 가마이다.

방치되고 훼손된 양산 범기리 요지 보존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발굴이 시급하다. 요지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밀발굴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사, 도예 분야 등 한일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 그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산 범기리 요지에 대한 연구를 확산시켜야 한다.

#### 4. 맺음말

본고는 사적 제100호 양산 범기리 요지의 운용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양산 범기리 요지 운용과 관련된 문헌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조선전기 간행된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

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지리지와 『왜인구칭등록』과 『변례집요』 등 瓷器 생산·제작 등 사료를 재검토하였다.

양산 법기리 요지의 문헌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첫째, 조선 전기의 지리지를 통해 동래를 비롯해 양산, 김해 등지에서 자기 등 생산되고 있어 부산포 왜관 인근 지역에는 다양한 가마가 존재하였다. 둘째, 절영도 임시왜관 시기부터 두모포 왜관에 가마가 설치되기 직전까지 왜관 밖에서 자기가 주문 제작되었다. 셋째, 일본은 제작 의뢰 뿐 아니라公私 교역을 통해서도 자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임진왜란 이후의 조·일관계와 연관해 다각도로 고찰해 보았다. 당시 동래, 양산, 김해는 자기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일본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또 강화교섭 직후인 1598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자기 수요에 맞추어 자기의 주문 제작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가마는 동래부 관내에 위치하였는데, 양산 법기리 요지가 유력한 생산 거점으로 추정된다.

지난 1963년 사적지 지정 당시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확정 지정하였다. 2013년과 2019년 2차례에 걸쳐 사적 제100호 양산 법기리 요지에서 시행된 정밀지표 조사에서 사적지의 주요 구역은 훼손되고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5년 전국 요지의 보존 정비 관리 방안을 위한 조사 보고서에는 사적지 일부가 훼손되었으므로 필요할 경우 요지 인근 지역 토지매입 또는 代土할 것으로 권고하였다. 양산 법기리 요지의 성격과 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식 발굴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이 필요하다. 조선과 일본의 강화교섭이 진행된 직후부터 왜관에 가마가 설치되기 직전까지는 동래부 관내 가마에서 의뢰받아 자기를 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고 자료를 통해 그 실체를 접근해 보았다. 그 결과 양산 법기리 요지에서 수습된 사금파리 일부를 대상으로 일본의 고려다완과 비교한 결과 문양과 형태가 서로 유사하였다. 고려다완은 일본에 의해 주문 생산되었으나, 조선의 장인과 흙으로 빚어 만든 것이다. 당시 사용한 가마는 양산 법기리에 소재한 가마로 추정된다.

15세기 중기 이후 동래현에서 자기가 생산되고 있다는 지리지의 기록, 대마도에서 差倭를 보내어 주문 제작한 다완의 존재, 현존하는 고고물질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사적 제100호 주변에서 수습된 사금파리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양산 법기리 요지는 朝·日 陶瓷 교류 추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 【참고문헌】

<사료>

『세종실록』,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경상도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단행본 및 논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2004)『국역 왜인구청등록』부산광역시  
 민족문화추진위원회(2000)『국역 변례집요』민족문화추진위원회  
 타니 아키라·신한균(2009)『사발』아우라  
 片山まひ(2010)「임진왜란 이후 일본 주문 茶碗에 대한 고찰」『미술사연구』24  
 신한균(2015)「井戸茶碗は何であって, 御本茶碗はいづ, どこで作られた物だろうか」『研究紀要』24 野村美術館  
 片山まひ(2015)「부산 고관요에 대한 고찰」『동양미술사학』3  
 신한균(2005)『우리 사발 이야기』가야넷  
 아사가와 노리타카 지음/최차호 옮김(2012)『부산요와 일본 다완』어드북스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2006)『문화유적분포지도-부산광역시』  
 부산시사편찬위원회(1989)『부산시사1』부산직할시  
 최연주(2017)『부산의 역사와 문화』신아사  
 양산시·NPO법기도자(2017)『법기리 요지 복원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움』  
 泉澄一(1980)「江戸時代の 日朝交流(上)」『關西大學 東西學術研究所紀要』12  
 우리문화재연구원(2013)『양산시 법기리도요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현황측량 결과보고서』양산시·우리  
 문화재연구원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2019)『사적 제100호 법기리 요지 정밀지표조사 학술연구용역』양산시·동아시아문화  
 재연구원  
 문화재청(2015)『요지의 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문화재청  
 문화재청(2020)『2020 사적 정기조사』문화재청  
 양산시·NPO법기도자(2019)『자료집 2019년도 법기리요지 국제학술심포지엄』  
 林屋晴三(1981)「概説」『高麗茶碗』中央公論社  
 문화재청(<http://www.heritage.go.kr/heri/>)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

논문투고일 : 2021년 03월 15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4월 16일  
 1차 수정일 : 2021년 05월 08일  
 2차 수정일 : 2021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5월 17일

---

---

 <要旨>
 

---

## 梁山 法基里 窯址와 高麗茶碗

최연주

梁山 法基里 窯址는 사적 제100호로서 한국과 일본의 도자기 교류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다. 高麗茶碗은 일본에서 조선시대 사발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양산 법기리 요지에서 수습된 사금파리를 통해 자기의 樣態, 文樣 등이 일본에 다수 존재하는 고려다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양산 법기리 요지 관련 문헌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첫째, 조선 전기의 지리지 분석을 통해 동래를 비롯해 양산, 김해 등지에서 도기와 자기가 생산되어 왜관 인근 지역에서 다양한 가마가 존재하였다. 둘째, 절영도 임시왜관 시기부터 두모포 왜관에 가마가 설치되기 직전까지는 왜관 밖 가마에서 자기가 주문 제작되었다. 셋째, 일본은 제작 의뢰 뿐 아니라公私 교역을 통해서도 자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1598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자기 수요에 맞추어 주문 제작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자기 가마는 동래부 관내에 위치하였는데, 양산 법기리 요지가 유력한 생산 거점으로 추정된다.

양산 법기리 요지에서 수습된 사금파리 일부를 대상으로 일본의 고려다완과 비교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금파리와 고려다완은 형식 및 문양에 있어서 유사하였다. 고려다완은 일본에 의해 주문 생산된 자기이지만 조선의 흙과 사기 장인이 빚어 만든 사발이었다. 양산 법기리 요지가 바로 생산 가마였음을 알 수 있다. 1963년 사적지 지정 당시 정밀지표조사 또는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정되었다. 양산 법기리 요지 성격과 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식 발굴 및 체계적인 보존이 필요하다. 한일 공동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도출해 양산 법기리 요지에 대한 연구를 확산시켜야 한다.

## Yangsan Beobkiri(梁山 法基里) Klin Site and Goryeo Dawan(高麗茶碗)

Choi, Yeon-Ju

Yangsan Beobkiri Klin Site is a historic site No.100 and it is a originally meaningful site to study History of Korea-Japan exchanges. The Goryeo Dawan is a Japanese term meaning 'A ceramic bowl manufactured in Joseon Dynasty.' By the fragments of porcelains investigated at the Klin Site, it is revealed the shape and pattern are closely related to Goryeo Dawan in Japan.

It is organized into three categories resulted from reviewing the related information. First, ceramic bowls were being produced for geography analysis in Dongrae, Yangsan, Gimhae. Therefore, various klins had existed near the area of Japan office. Second, ceramic bowls were custom-made before the klins were installed in Japan office of Dumopo. Third, Japan tried to supply ceramic bowls from trade networks. It is presumed Yangsan Beobkiri Klin Site was a prone place to produce ceramic bowls ordered by Japan.

There are many similar parts comparing the fragments surveyed in Yangsan Beobkiri Klin Site. Goryeo Dawan is porcelain designed and ordered by Japan. However, it is a ceramic bowl made by the amount of Joseon's soil and skill. To sum up, Yangsan Beobkiri Klin Site is the center of them precisely. The excavation and preservation of Yangsan Beobkiri Klin Site are systematically necessary to activate the research. Continuing joint research for History of Korea-Japan exchanges must be maintained for extension of research.